
**2019년도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경 기 도

회의 일시	2019. 12. 18.(수) 14:00
회의 장소	국립수목원 2층 회의실
회의 주제	2019년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정기회의
2019. 12. 18. 산림과	

제일합동속기사무소

속기사 김희진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 일 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4:00

◎ 장 소 : 국립수목원 2층 회의실

◎ 안 건

1) 2020유네스코정기보고 주요내역

2) 2019년 관리센터 주요사업

3) 2020년 주요사업계획

◎ 참석 위원

- 경기도의회 의원[포천 소흘·내촌] ○○○ [부위원장]

- 국립수목원장 ○○○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부의장[의정부 송산1, 2동] ○○○

- 경기도의회 의원[남양주시 진접읍] ○○○

-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남양주시 부시장 ○○○

- 포천시 부시장 ○○○
- 의정부시 담당팀장 ○○○
- 봉선사 종무실장 ○○○
- 문화재청 광릉관리소장 ○○○
-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장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
- 직동리 등 7개리 부회장 ○○○
- 한국환경교육원 소장 ○○○
(유네스코MAB 한국위원회 위원)
- 대진대학교 교수 ○○○
- 경기도연구원 선임 연구원 ○○○
-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본부장 ○○○
- 소흘읍 이장협의회장 ○○○
- 소흘읍 여성농업인회장 ○○○
- 직동리 등 7개리 부녀회장 ○○○
- 의정부시 송산2동 통장 ○○○
- ◎ 서기 - 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회 의 록

【 개회 14시 00분 】

■ 서기(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안녕하세요?

경기도 산림과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에 ○○○ 사무관입니다.

□ 위원 소개

■ 서기(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오늘 2019년도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분 한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이신 ○○○ 경기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부위원장이신 ○○○ 국립수목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경기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경기도 축산산림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남양주시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포천시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봉선사 종무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문화재청 광릉관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직동리 등 7개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한국환경교육원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저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국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회 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인 사)

(박 수)

○ ○○○ 대진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경기연구원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 ○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 ○ 소흘읍 이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 ○ 소흘읍 여성농업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 ○ 의정부 송산2동 통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 ○ 직동리 등 7개리 부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 ○ ○ 의정부시 담당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성원 보고

■ 서기(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이상으로 2019년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정기회의 재적인원 총24분 중 20분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회의록 작성 안내

■ 서기(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이어서 공지사항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발언에 대하여는 속기로 작성되며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 진행순서는 우선 유공자 표창장 수여와 관계자로부터 3건의 사업보고를 받으시고 정기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신 ○○○ 경기도 행정2부지사님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시어 ○○○. 부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표창장 수여

■ 서기(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먼저 유공자 표창장수여가 있겠습니다.
유공자는 ○○○ 관리센터장으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장이 수여되

겠습니다.

수여는 경기도 의회 ○○○ 부의장님께서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두 분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장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

귀하는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화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의장 ○○○. 대독.

(인 사)

(박 수)

□ 2020년 유네스코 정기보고 주요 내역

■ 서기(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이어서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연구원의 2020년 유네스코 정기보고 주요내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발표자(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원 ○○○)

○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입니다.

발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정기보고서 페이지수가 16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두 설명 드리기에 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일어난 변화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간추려서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 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광릉숲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자연, 인문, 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국가통계자료, 각 지자체와 관련기관 내부자료, 관련보고서와 논문,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토론회 의견수렴과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현황도 및 둘레길 도면, 식생도, 생태자연도, 토지이용도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써야 하는 이유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 10년마다 정기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 연구 영역이 시작되었습니다.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관리위원회와 관리센터가 개원하였습니다. 관리센터는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심관리 기관으로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안전적 관리 기반을 확보한 것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 지정 이후 지난 10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고 계시다시피 광릉숲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으로는 지역주민과 기관이 협력하여 광릉숲 산림보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횟수를 늘리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을 강화하였다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

○ 그 밖에도 광릉숲의 이용적인 측면에서,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활발한 이용을 하였는가 인데요.

과거 광릉숲은 국립수목원에 과도한 이용객 방문으로 문제가 된 이후로 탐방객수 제한을 하였고, 현재까지 연간 35만명 정도의 방문객

수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입니다.

주로 봄과 가을철에 방문객수가 집중되어 있고, 최대 약 7만명 정도가 가을철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광릉숲을 활용한 대표 지역축제인 광릉숲 축제는 매년 방문객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약 6만명이 축제에 참가하여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활발한 활용에도 광릉숲에서 발견된 생물 종수는 2009년 조사보다 1814종이 증가한 6270종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 수는 생물종 모니터링 10개 분류군에 대해 국내 서식 생물종의 약 19%가 광릉숲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한 풍부한 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철저한 보호관리 하에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 적극적인 보호관리 활동과 이용을 제한한 활동 외에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은 더 넓은 완충지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구역은 국유지 경계와 유사하고 대부분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국립수목원의 완충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립수목원의 완충지역은 수목원법에 의해 개발행위 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 부분들이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남양주시와 포천시 쪽 경계부가 광릉숲 협력구역과 그 외 지역을 포함하면서 적극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권보전지역 협력 구역의 취지와는 반대로 법적 제재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이 헛갈릴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 현재 완충지역의 토지매수 현황은 매수를 신청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11년부터 연간 16억의 예산으로 토지매수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는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총 매입면적은 7.6ha 전체 빨간 부분 1.32% 정도이며, 매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 생물권보전지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공시지가 만으로 계산하였을 때 나머지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4,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보전을 위한 민간, 기관의 노력 이외에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건설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릉숲 둘레길과 정원벨트를 조성한 것입니다.
둘레길은 총 연장 57.7km 포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3개 시에 7개 코스로 구성되었으며, 예산 64억이 투입되었고, 정원벨트는 광릉숲 길이라는 숲속 산책로로서 총 연장 2.3km에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이 두 가지 사업에만 총 9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지정 당시 계획했던 광릉숲과 관련 투자예산 금액 3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 이 밖에도 광릉숲 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 위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주민단체, 관련기관, 지역 정치인 등이 협력하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외부에 발생하는 각종 개발 계획을 저지 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보전활동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서 제2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관통터널이 우회하였고, 경기북부 자전거 순환길 기존 도로를 활용하였으며, 남양주시 첨단가구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철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하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정기보고서는 이후 MAB 한국위원회로 제출되어 여러 번의 보완을 거쳐서, 영문보고서로 번역을 하고, 유네스코로 제출하여 지정 연장 결정을 받기까지 1년 반이 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현황 그리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가공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는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 앞에서 보시다시피 국내에서 여러 차례 검토와 보완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향후 보고서 작성에는 장기간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하여 지정연장 시한 2년에서 3년 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2019년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주요사업

■ 서기(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3건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보고가 다 끝나고 정기회의 위원장님 주재하시고 시작할 때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2019년도 광릉숲 BR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센터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발표자(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장 ○○○)

○ 안녕하세요?

(박 수)

○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서 있어서 노래를 불러야 될 거 같습니다.

○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2019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위·수탁 사업이 12월 31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년에 걸친 사업들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걸친 사업들입니다.

○ 먼저 이 이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이번에 대상받은 조형전이에요. 그러니까 숲 아래에서 사람이 누워 있는데 무덤에서 요람까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의 젊은 청년의 모습에서 마지막 노년까지 그래서 숲과 인간의 어떤 생명의 중요성 때문에 이게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 그래서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여기 생물권보전지역에 와서 가장 축복은 뭐였냐면 이 아름다운 광릉숲을 2년 동안 너무나 마음껏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 지금 보시게 되면 2017년 6월 27일에 저희가 협약을 했고, 센터는 18년 1월 11일에 운영을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운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4가지 사업이 됩니다.

- 첫 번째는 지역민과 관계 기관 네트워킹,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에 있는 미래세대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사업,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이 네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 지금 ○○○ 회장님 와계신데요.
○○○ 회장님이 저희 생물권보전지역 주민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8개 읍면에 각 위원 2명씩 위촉을 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분기별로 운영해서 지금까지 3번을 했습니다.
-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각 동우회들 이렇게 간담을 통해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 지역에 생태적인 이슈들은 무엇인지를 담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략 70회, 횟수를 세어 보니까 70회 이상의 간담회와 회의를 가졌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좀 알리는 작업들을 했고요.
- 그리고 기타 외부에 있는 기관들을 찾아가서 다른 지역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은 아니지만 생물권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조금 했습니다.
- 그리고 여기는 관내에 있는 이곡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시범적으로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150명을 상대로 전교생들한테 교육을 했는데요.
가장 좋았고, 앞으로 했으면 좋았던 게 저희가 전교생을 모아놓고 마을 주민이 교육을 했어요.
포도 작목반 회장님이 포도를 가르치고, 지역민이 직접 심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외부 강사가 아니라 마을 주민이 직접 아이들에게 식물을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이슈였고요.

그래서 7번에 걸쳐서 이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숲 교육 장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숲과 생물권보전지역을 알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올 7월에 국립수목원 신관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임시사무실을 1년 6개월을 썼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칸에 한평 갤러리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갤러리 사진
이구요.
- 그리고 이거는 생물권보전지역 지도에 8개의 번호가 있는데요.
8개의 지역주민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릉숲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목공교실이라든가
지금 새집을 짓는 거, 자수교실, 야생차 만들기 또 천연염색, 숲에서
여러 가지 공연과 창작과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공동체입
니다.
저희가 공동체 8개 중에 이게 첫 번째고요.
- 두 번째 광릉숲 예술인 공동체인데요.
여기에서는 전체 5번에 대공연과 4번의 버스킹, 8번의 설치 미술전,
3번의 일반 작품 전시를 했는데요.
경희대 광릉 이쪽 캠퍼스와 국립수목원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
과 설치미술전을 했습니다.
여기는 산림박물관이요.
- 그리고 마을이야기라고 해서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
수목원 신관 이쪽에 보면 직동리 하천길이 있는데요.
그 공유부지에 한 평짜리 소 정원을 만들어 보는 시범 사업을 했습
니다.
- 그리고 숲 쉬는 우리 숲, 인기가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분은 화학자입니다.

이 분은 화학을 하신 분인데 이 지역에 나는 소나무, 오미자, 측백 등을 가지고 전통주, 이곡주를 개발을 했어요.

이곡주, 광릉주 이걸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광릉숲을 알리고 이것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 그리고 배울골 자연염색, 광릉숲에 측백나무, 전나무, 밤나무를 이용해서 염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염색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광릉숲에 대한 중요성들을 알리고 싶어서 직접, 이거 1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근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서 염색하고, 리플렛도 만들어서 나눠 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이걸 화현꽃고을 공동체인데요.

화현면에 가면 검정고무신 마을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다가 100만원, 사업비 100만원이 들었는데요.

모종을 사서 이렇게 꽃밭을 조성 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8개의 공동체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결과가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 저희가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홍보하는 것, 생물권보전지역이 무엇이고,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에 해당된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알리는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실제 조금이라도 참여해보는 그런 사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년차에 걸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2020년 주요사업 계획

■ 서기(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이어서 2020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날 임시회 때 이쪽 주변에 들어서는 시설
단지들에 대한 입지 선정을 재 권고 하라는 저희가 의결을 했었는데
요.
그 이후로 일어난 주요사업들의 동향들을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팸플
릿 한 장을 넘기시면 앞부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 일단 지난 10월 25일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 의원 주체로 국립
수목원하고 주체를 해가지고 생물권보전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 토론
회를 개최 했었고요.
- 지난 11월 5일에는 남양주시장님이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는데, 이 근
처에 들어오기로한 침단가구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취소하시는 그
런 발표를 해주셨고요.
- 지난 11월 26일에는 환경부에서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전략환경평가
서에 우리 쪽에서 요청한 연중 1년 식물성 조사라든가 4계절 식물성
조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보완 통보를 했었고요.
- 지난 12월 9일에는 권익위에서 포천시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고충민
원과 저희가 의결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포함
하는 입지선정 재 권고를 시정 권고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 제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저희가 과연 이 광릉숲을 위해서 무슨 일
하는 게 좋은가 생각 보니까 동식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여기 지
역 주민 행복하게 생활하고,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탐방
을 하고 힐링하는 그게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같이 조화롭게 운영되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보고는 크게 두 단락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주민 참여 및 홍보 사업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공동체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 센터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2개 분야 8개 사업을 금년에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셨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신 분들이 계시고, 실제 음악회나 전시회 때 수목원을 찾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준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호응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약 2배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분야는 3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도 약 올해 1억이 안 들었는데 내년에는 1억 6천까지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는 ○○○. 센터장이 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보고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광릉숲 심벌마크 로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2012년부터 2014년도에 등록한지 7,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 이게 지금 다른 지역 고창하고 제주도 우리나라에 생물권보전지역이 8군데가 있는데 가장 운영이 잘 되고 많이 알려진 곳이 고창하고 제주도입니다.
고창이나 제주에서 이렇게 각자 자기네한테 맞는 심벌 로고 등을 넣어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는데 크게 히트치지는 못했습니다.

- 저희도 이런 상당히 다양한 이런 로고도 있고, 인증마크 등등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부분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포천에 있는 특산물에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포천시나 의정부, 남양주시에서 추천하는 음식점이나 또 아니면 주요관광지 이런 곳에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면 이 로고가 설치된 곳 자체가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거는 지금 우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이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시다.

10년이나 됐는데, 1주기가 지나서 유네스코에 또 10년 연장하는 그런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거를 홍보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릉숲에는 크낙새는 떠나서 지금 없긴 하지만 장수하늘소라든가 20 여종의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기념물이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소재로 해서 동화책을 만든다든가, 동요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거는 다른 지역에 국립공원이나 인천시 또는 이러한 많은 것 들이 있는데 저도 이걸 직접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기는 한데 내년에는 저희가 나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받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주요 사업들에

대한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 첫 번째는 현재 지금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도면입니다.
이쪽에 남양주 지역이 되겠고요.
포천시 쪽이 되겠고, 이쪽은 의정부 지역이 됩니다.
-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여기 빨간 부분이 핵심지역이고, 완충지역이고, 협력지역, 전이지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협력지역으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핵심지역이나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협력지역이 이렇게 넓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들 물어 보십니다.
- 세계유네스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지정할 때는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오남, 진건까지 여기 별내동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로 인해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빨리 지정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을 설득하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신청을 했었고요.
- 남양주 분들 이해는 갑니다.
남양주 하면 참 규제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 줄 굿는 자체를, 저희도 그린벨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지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린벨트라서 아직도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줄긋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 근데 지금 10년이 됐지만 포천시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도 포천시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전체가 다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고창도 그렇고요. 연천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어떤 이런 규약이 있

다고 그러면 아마 그 분들이 돌아가시지 못 할 겁니다.

유네스코 국제규약에도 보면 국내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국내법에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어떠한 규약사항도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협력지역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진접하고, 별내까지는 이렇게 해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1년, 단기적으로 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실 10년 안에만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10년 동안 목표를 삼아서라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 두 번째로는 이게 광릉숲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한데요.

지정의 당시부터 남양주 봉선사고 현재 저희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4km가 되는데 이 길이 좁고 또 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위한 나무들이 보면 아릅드리 두꺼운 나무들이 교통사고 등등 여러 피해로 쓰러지고 토막 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의 배출가스로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 그래서 차를 없애는 부분을, 차를 통제하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실 것 같고요.

이용객들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들, 시간을 통제할 건지, 요일로 할 건지, 계절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대안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깐 한 5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군데 거기도 부분적으로 요일로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외국에서도 프랑스의 샹들리에 거리 여기도 상당히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보니깐 우리 JTBC에서 이거를 잘 모아놓은 짧은 동영상 있는데 이거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JTBC 방송 동영상 시청)

- 죄송합니다.

소리가 작았네요.

- 광릉숲 4km 구간을 이제 차량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제를 전면 싹 막을 거냐, 아니면 부분 통제를 할 거냐, 요일별로 할 거냐, 계절별로 할 거냐 또 아니면 주민들은 다니시고 일반 차량만 할 거냐, 큰 차 못 다니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개발을 해야 될 거 같고요.

- 숲이 여하튼간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이나 직원들이나 비상차량 등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마차로 온다든가, 트랙으로 해서 온다든가, 자전거, 도보, 여러 가지 전기차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헬리콥터 같은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짚라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많은 것이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나머지 공간들은 체험부스라든가 프리마켓, 문화, 공연 이런 공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을 딱 막아서 한 예는 제가 못 찾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나 이런 도심에서 일부 구간을 막아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는 많은데, 자연만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차량 통제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 예는 많지 않은데, 이 광릉숲이 꼭 그렇게 돼서 세계적인 자원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경기북부 국제보호지역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는 한데요.

국제보호지역이라면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것이 여기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이 있고, 지질공원이 있고,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국제보호지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가 우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올해에 지정받은 연천군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4월, 지금 현재는 국가지질공원이고요.

내년도 4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 될 예정입니다.

올해 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이 있는데요.

-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세 개가 다 이렇게 연결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운영이나 관리시스템을 하나

의 시스템으로 묶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이긴 하지만 제주도는 생물권보전 지역, 지질공원,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서 세계 유네스코에서는 3관왕이라고 합니다.

3관왕을 해서 제주도 통계에 따르면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는 자체 보고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도 이것이 통합이 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이 휴전선 쪽이 되니깐 지금 DMZ 세계유산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세계 3대 타이틀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가 국가적인 이런 DMZ 세계유산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경기도 같이 연계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상에서는 구상 중에 있고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심의

■ 서기(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지금부터는 ○○○ 부위원장 정기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지금부터 2019년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오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앞서 보고해 주신 담당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안 1.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평가서 심의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오늘 상정 안건 1개로 관리센터 평가서에 대한 심의입니다.
-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 제20조 2항에 보면 “관리센터는 매 회계연도 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의 평가와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리센터에서 작성하고 경기도가 평가한 심의서 자료를 책상에 놔드렸으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고 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발전방안 토론시간으로 좀 전에 각 담당자들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이나 기타 생각 하신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소홀읍 이장협의회장 ○○○)

- 아까 관리센터에서 오신 팀장님이 마지막 보고에서 하실 때, 차 없는 거리가 상당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게 주변에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참 이 자리에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 오셨고, 수목원장님도 계시고, 포천부시장님 오셨고, 도의원님들 오셨으니깐 이 자리에서 그거를 심도 있게, 사실 그게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지역주민들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려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가까운 예로 남양주시에 봉선사 관계자 분도 나와 계시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참 훌륭합니다.

좋고, 부럽습니다.

-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포천에 이쪽은 포천시민을 비롯한 의정부나 이쪽 방향에서 오시는 주민들은 여기서 지금 현재 데크 길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쪽에서 오신 분들도 그거를 이용하려면 봉선사에서 주차하고, 거기서 여기 힐링하고 다시 봉선사 가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 수목원센터장하고 말씀도 건의를 해봤지만, 사실 수목원에서 예산 세우는 부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천시는 재정 자립도가 없는지 돈이 없다니깐 큰 부잣집은 경기도에서 오늘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 62-9번지 옆에 보면 소규모 지역 주차장 조그마케 있는데, 그 맞은편에 농지 그거 2, 3천 평 정도 되는데 그런 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100억 이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인프라를 좀 구성해 주면 양쪽이 윈윈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크게 명품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인프라를 구축 해주면 지역 주민들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깐 오늘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 도의원님들도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또 수목원에서도 또 그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수목원의 발전 방향도 있고 또 제가 계속 누차 와서 여기 들어보면 최종 목표가 차 없는 거리 같아요.

자꾸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 올 봄에도 남양주시에서 가을에 축제를 하는데 차 없는 거리로 축제한다고 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는 됐지만, 전국적인 목표는 자꾸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큰 결단하셔야 될 거 같아요.
100억이고 200억이고 통 크게 투자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포천시 부시장님 가서서 우리 시장한테 얘기하셔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상의 하셔가지고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차 없는 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깐 재정이 넉넉한 경기도 그리고 포천이나 남양주에서 협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그러면 우리 남양주하고 포천시 부시장님들께서 오셨으니깐 간략한 답변을 듣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위원(소홀읍 이장협의회장 ○○○)

- 도에서 먼저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시에서 먼저 듣고, 이게 시하고 도하고 같이 가야 되니깐 일단 시부터 의지가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남양주 부시장님 간단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원(남양주시 부시장 ○○○)

- 글썄요.
지금 갑작스러운 의제라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그 통행을 통해서 영향이 심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광릉숲 주변에 도로도 많고 또 주변에 더 많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논의를 좀 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지금 직접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제가 듣기로는 긍정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 우리 포천 부시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포천시 부시장 ○○○)

○ 저도 뭐... 마음은 다 공감하실 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하나 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 SOC 공공사업을 각 부처별로 꾸준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돈을 집행해서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 포천시, 의정부, 남양주 힘을 합쳐 가지고 공동의 이름으로 생활 SOC로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포천 쪽이기는 한데 주차장만 갖고 안 되고 주차장 플러스

■ 위원(소흘읍 이장협의회장 ○○○)

○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기 사실 유네스코 로고 브랜드도 많고 그러는데 그 농산물 판매도 사실 생물은 유통기간이 짧아서 그거는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도 건조 정도라도 해야 1년 12달 그런 판매장 정도로..

■ 위원(포천시 부시장 ○○○)

○ 판매장, 좋아요. 아주 좋아요.

■ 위원(소홀읍 이장협의회장 ○○○)

- 그 다음에 혹시 그런 거를 유치하려면 소규모 조그마한 공연장, 요즘에 동우회가 많잖아요.
밴드 동우회 하모니카 등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곁들이면 여기가 명품이 되지 않을까?

■ 위원(포천시 부시장 ○○○)

- 그렇지요. 그 돈 누가 댈 거냐가 관권이잖아요.

■ 위원(소홀읍 이장협의회장 ○○○)

- 그러니까 여기 계신 결단력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 위원(포천시 부시장 ○○○)

-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높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국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활SOC 공모도 국가 공모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 50%나 60% 내면 도와고 시가 협력을 해서 이제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생활SOC 프로젝트하고 또 이제 생각나는 게, 도시재생인데 도시재생은 지금 올해 특별화 된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는데, 도시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전략계획을 시가 세워야 돼요.
-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지역은 신청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 말고도 재미있는 곳이 있으면 신청해봐.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어요.
인정사업이라고 해요.
이거는 도시재생으로 인정 할만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거든요.
우리 4개 지자체지요. 의정부까지 해서, 경기도 해서 넷이지요.
공동으로 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프로젝트 방금 내용들을 인정사업을 만들 수 있거든요.

- 그래 가지고 생활SOC 공모랑 비벼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가 좋잖아요.

유네스코 세계가 지정한 이런 좋은 테마를 공동체도 가꾸고 이런 기반시설도 가꾸고 그래서 관광 소점으로 육성해 보자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더 긍정적이신 ○○○ 위원님.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이게 어렵게 볼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작년 이 위원회 와서 차 없는 거리를 주장을 했고, 다행히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올 초에 경기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어요.

거기에 지금 얘기하신 거는 딱 넣었어요.

- 차 없는 거리 조성 지원해서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차 없는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미 근거는 마련했어요.

그래서 차 없는 구간 지정, 우회도로 라든지 다른 거 지정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 친환경 자동차 구입 및 운행에 관한 거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넣어서 하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이게 지금 문제가 우회도로 문제가 있고, 우회도로가 사실 지금 멀리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여 좀 더 짧게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고, 주차장 얘기하셔가지고 여기 길을 막게 되면 그 차량들은 환승 개념으로 어떤 주차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남양주 쪽도 주차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확장 될 곳이 있거든요.

포천도 역시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경기도

지사가 할 수 있게 제가 올해 만들어 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 반영해서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경기도의회는 준비가 다 된 거 같아요.

조례도 다 개정 해냈고 하니깐 집행부에서 사업만 꾸미셔갖고 예산만 올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소홀읍 이장협의회장 ○○○)

○ 그러면 경기도 우리 BR위원회가 힘 쓸 일 밖에 없네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되겠네요.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그러면 도의 대표 격으로 오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남양주나 포천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돈은 더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지질공원 우리 포천부시장이란 심사도 받아보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한탄강 지질공원 받으려고 그런데 그 유네스코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 협력지역이나 우리 지역 안에 주민들을 같이 상생하는 거, 어떤 개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지정이 되서 같은 잘 사는 거가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수익을 늘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제가 몸이 하나 밖에 없어서 개발을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이 저희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의 저희가 목표액보다도 적게 지금 해가지고 2020년도 예산도 책정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백운계곡이랑 포천 계곡을 정리해서 거기에도 지금 이번에 공공사업을 나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서 대신에 그 주민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에 SOC 사업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우리 포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SOC 사업을 해서 우리 여기 지금 지역주민대표 분들이 많이 와계시잖아요.
-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광릉 BR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예산을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유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많이 안내를 못 해서 그게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하고 이런 주민 참여하는 예산을 많이 참여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만큼 또 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하고 인프라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벨트화 시켜서 북한하고도 한탄강 지질공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남북 협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광릉의 BR이 가장 기본적으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소홀읍 이장협의회장 ○○○)

- 근데 주민참여 예산이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홍보, 그 내용을 몰라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그런 거를 좀 누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실 또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니깐 그걸 잘 보완설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실제 홍보 자체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주요정책 예산에 관련된 사업은 설명회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남양주, 포천 인근 관련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포천시 부시장 ○○○)

-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도에게 요구도 해야 되고, 중앙에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 근데 딱 이 반페이지 짜리 이야기만 있고,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한 적어도 2, 30 페이지짜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 기본 마중물 작은 연구 용역이라고 할까요? 한 2, 3천에서 몇 천만원짜리 정도 연구해서 기본 구상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이제 ○○○.의원님이 말씀대로 바로 도비로 내라. 할지라도 어떤 뭐가 있어야 그 돈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 그러면 제일 빠르겠지만 또 그것도 안 되면 국가예산도 같이 병행하면 규모가 더 커지고 더 롱텀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작은 용역을 시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지금 사업계획 관련 되서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 봤는데 이게 지금 예산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어보고 싶은 게, 이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사업 관련 해서 예산 1억6천 세우신 거 맞나요?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4억8천입니다.
총 4억8천입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4억8천중에 아까 그 1억6천이 지역공동체 사업이고, BR 로고 연계 사업은 얼마입니까?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그거하고 홍보하는 게 약 2억 정도 됩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약 2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예산이...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그게 통으로 4억6천, 4억8천2백만원이 예산이 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사업으로 1억6천, 그 다음에 홍보사업으로 2억, 그 다음에 센타 사무실이 여기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임대료와 나머지 쓰는 금액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나머지는...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〇〇〇)

○ 관리센터운영비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그리고 여기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쓸데가 있습니까?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〇〇〇)

○ 용역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4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국비 2억, 도비 2억해서 4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저희가 아직 배정, 늦게 이게 이제 지난 6월 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라서 그거는 정부가...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어떻게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〇〇〇)

○ 지금은 반영을 못 하고 1회 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내년 추경에, 그러면 할 때 지금 여기 용역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다 용역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BR 협력지역 확대 방안, 수목원 관통 도로 차 없는 거리 추진, 경기북부 국제보호지역 통합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건을 용역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묶어서, 거기에 보면 관리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그 용역 안에 담겠다는 거지요?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예, 그렇습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그러면 그게 언제 용역에 나오나요? 하게 되면.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그러면 이 수목원 관통 도로 차 없는 거리 용역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예, 맞습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이런 아까 얘기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다 충분히 반영이 되가지고 그 나온 건가요? 그 결과가.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예, 그런 거까지 다 감안을 해서...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오늘 나온 얘기들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을 좀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이라도 오늘 회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좀 반영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 이 정도로 오늘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알겠습니다.

관리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부가 2억, 그리고 경기도가 2억, 합이 4억인데 그거를 준비했었는데 이번 정부 예산을 빠졌지요.

그래서 경기도가 못했었던 부분인데, 아마도 제 생각도 2020년도에는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아니면 그거가 시간이 관리용역까지 포함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 예산 중에 홍보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2억 중에 일부를 차 없는 거리 용역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홍보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〇〇〇)

- 추경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왜냐하면 내년 예산이랑 연계를 하려면 내년 안에 끝내줘야지 집행부에서 그 후년 예산 편성할 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그전에 늦어도 내년 9월, 10월에는 끝내줘야지 그걸 갖고 그 후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 예산 2억

이 조금 과도해 보이거든요.

왜냐 로고 연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스토리 창작사업도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2억 편성은 너무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 오늘 이 지금 사업 계획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예산 심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심의 과정에서 2억 부분의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하고 거기에 일부를 차 없는 거리 용역으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면 어떻게 이러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여기에 묶이기에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게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요.

■ 위원(경기도 지방녹지사무관 ○○○)

- 의원님 어차피 이게 1회 추경이라서 편성할 때...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의원님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산림청에서 국비가 안 되서 우리가 못 세워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도에 그 자체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용역을 공무원이 참여해서 전문가하고 할 수 있거나 우리가 경기연구원에 별도로 다른 차 없는 거리나 이렇게 집중해서 그 거를 연초에 별도로 일단 시작을 하고 추경이 나오면 연계해서 담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그렇게 해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연구 용역을 사실은 예전에 경기연구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 데이터 수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꽤 흘렀으니깐 갱신을 좀 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깐 서둘러서 해서 내후년 예산에 관련 인프라를 넣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그게 1년에 안 끝날 테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프라를 갖추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그거를 의결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준비를 서둘러서 하신다고 했으니깐, 기대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천 ○○○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주민참여에 관련된 부분에 준비가 어려우니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커다란 용역이고, 지금 ○○○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근거 용역이었으니까는.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주민 참여하는 사업이 뭔가요? 주민참여예산 말하는 건가요?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예.

■ 위원(포천시 부시장 ○○○)

-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세팅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잖아요.

작은 거는 150억, 250억.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경기도가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선정을 하고, 도시재생은 마을 단위로 들

어가야 될 문제고요. 포천에서 도시재생사업하면 되지요.

하면 되는 거고, 저희도 지금 저희 지역하려고 생태지역 선정하고, 여기 근처에 광릉내라고 여기랑 연계한 곳을 도시재생하려고, 그건 도비사업으로 100억 정도 되고, 국비 되는 건 300억 정도 되니깐, 국비 말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일정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주민참여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이라서 여기에 언급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도시재생사업 중에 인정사업이라고 있는데, 인정사업에 광릉숲 인근에 대한 사업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지금 그걸 하려면 생태지역 선정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아까 7개 할당 되면 그 중에 지역별로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되는 문제라서 포천시에서 특정 지역하려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되요.
지금 말하는 건 남양주, 포천에 경계선 구간에 대한 관통도로 얘기잖아요.
이 관통도로를 도시재생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을 도시재생사업 하겠다. 그거는 시에서 하시면 되요.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아까 이해가 다르긴 한데, 정리 좀 할게요.
맞는 지는 ○○○ 부시장님한테 여쭙어 볼게요.
○○○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사업에서 이 광릉숲 인근에 대한 참여예산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원해 달라 요청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그건 이거와 관계없고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또 프로세스가 있어요. 거기다 다양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니깐,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부분은 저희 위원회의 안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알겠습니다. 일단 〇〇〇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해를 했는지 여쭙어 보고, 추가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포천시 부시장 〇〇〇)

- 지금 우리 〇〇〇 위원님께서서는 생각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따는 거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깐, 당장 도에 돈을 먼저 줘, 이런 플레임을 먼저 하고, 이거 할 거면 별도로 진행을 하세요.” 이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〇〇〇)

- 그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저도 저희 지역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릉내촌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요. 그러니깐 그거는 포천에서 추진하시면 되는 문제고, 지금 주제는 관통도로에 대한 인프라 문제를 하는데, 인프라 문제로 아까 주차장 말씀하시고, 그러니깐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긴다? 그거는 거기 나름대로 용역 예산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차가 굉장히 지난합니다. 주민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단 연도에 선정도 되지 않고, 여러 번 떨어지고 해야 되는... 고양 같은 경우는 5개가 있고, 제가 또 상임위기도 하니깐, 그건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관통도로 얘기하는데 왜 도시재생사업 용역비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저희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 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그건 주민참여예산대로 예산 신청하면 되요.

그런데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까지 다룰 문제는 아니니깐, 주민들이 요구하면 되는 거니깐, 저희는 지금 여기에 차 없는 거리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깐, 그리고 또 그때 논란 끝에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근거도 마련해 났어요.

지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 부시장님 의견처럼 “뭐가 있어야지 예산을 주지 않냐?” 그러면 그거는 결국 용역을 해보면 주차장이 여기가 필요하고, 이런 게 나와 주면 거기에서 그런 도비 예산, 매칭이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 위원(포천시 부시장 ○○○)

- 이해가 다 됐어요. 그 말은 다 이해는 됐는데, 다 이해한 걸 또 말씀하시니깐...

■ 위원(봉선사 종무실장 ○○○)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솔직히 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뭐 하실 건가요? 지금 이 차 없는 거리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됐어요.

저는 지금 이 회의를 갖다가 거의 8, 9년째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지금 차 없는 거리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지 아세요? 일단은 처음에 차 없는 거리 만들 때는 차 없는 거리 끝에 있는 마을에 대한 테마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거기에다 맞추었어요.

그러니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양쪽 끝에 있는 주민들이나, 어차피 자연은 여기가 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자연도 보전하지만 홍보도 하고 같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차 없는 거리만 만들어서 뭘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전에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다가 무너진 게 양쪽 끝에 마을의 테마를 뭐로 정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 통제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차량 통제 하나도 안 되요.

나중에는 어떤 분은 일단은 트럭은 못 다니게 하겠다.

그런데 SUV 차량도 다 디젤을 써요. 그런데 그 차량은 또 다녀요.

그러니깐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얘기 해봐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도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어요.

그러니깐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과연 뭘 하실 건지, 일단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 위원(남양주시 부시장 ○○○)

- 그 논의가 저는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 아까 설명할 때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 10년 정도 논의했다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과 함께 아주 세계적인 핵심 도시에 일시적인 차 없는 거리 사례를 놓고, 아주 사람들이 행복한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광릉숲 차 없는 거리에 바로 적용된다, 라는 아주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서두르지 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입니다.

너무 서둘러서는 말만 나오고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 또 하나는 전제가 뭐냐면 오염이라는 거지요. 오염에 대한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차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다니는데 그게 광릉 숲에 어떤 부하를 주는지, 그냥 막연한 인과관계 없는 “오염 끼칠 거야, 그러니깐 차 없는 거리 해야 돼.” 그리고 뭐 상젤리제 거리 사진 몇 개 놓고 “차

없는 거리 가야 돼.” 이런 논리적 비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필요성과 이런 거는 공감을 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신중한 논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아까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예산을 어떻게 담을지로 확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성급한 의제가 아닌 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협력지역 확대 문제도 신중하게 용역 대상에 포함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생물권보전구역 유네스코에서는 뭘 하지 말라는 제재사항을 가지고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어떻게 공존 할 것인지, 개발과 활용,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라는 게 또 한편의 유네스코 정신입니다.

생물권보전 만큼 소중한 또 하나의 같은 비중이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는 광릉숲 안에만 테두리를 딱 치고, 그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논의에 집중 되어 있어요.

그 주변과 또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차 없는 거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협력지역의 확대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 협력지역에 포함 뭘에도 불구하고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나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보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없이 그냥 용역만 하면 실현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과학이 발전을 했고, 또 여기 과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조사도 없이 그냥 과거에 도면이 이랬으니깐 이 정도

는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국립수목원장 ○○○)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주 정밀한 데이터는 아니어도 97년에 보전된 이후로 정기적으로 시기별로 교통량 조사, 오염도 조사, 매달 매주 이런 건 아니어도 그런 데이터들은 축적이 됐고, 또 관통도로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나무들 쇠퇴하고 뿌리 다 죽어가고, 뿌리 스캔까지 해서 이 주변의 생태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 받고 있는 데이터들은 양적으로 많지 않아도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축적된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의미 있게 꺼내고 설명하는 일들은 주최되는 일들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 부시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각각의 구석에서 자꾸 얘기가 되니깐 오해도 있고, 이해 당사자도 달라서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들을 진행하자고 지난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도에서만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가 같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해서 도비, 국비 같이 엮어서 그런 용역비를 확보해서 적어도 그 그림 안에는 각 지자체, 주민, 국가, 자연이 함께 그림에 대한 것들을 앉아놓고 하면 그 안에서 빨리 할 사업, 각 지자체별로 할 사업, 같이 할 사업, 국가가 할 사업, 이런 일들을 하자는 진도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있고, 빅데이터도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 두 번째는 아까 우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큰 틀의 사업들 논의들도 있는데, 막상 주민들이 이런 수익사업들을 하고자 하면 그것들을 엮어내고, 도움 받고 하는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이 일선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보기에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BR센터가 여기 자리 잡았고, BR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묶어서 사업화하고 연결해주는 것이 BR센터가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지난 1년 사이에 매우 단계적으로 천천히 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지서부터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빨리 진도 나가셔서 확보된 지역사업하시고, 차 없는 거리는 백지 일은 아니어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자 하면 단계 용역이 필요한지, 그런데 국비와 도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아시겠지만 국비는 내년 사업 다 끝났고요. 후년 사업을 내년 봄까지 다 끝내야 되고, 이런 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하려면 어떤 일이 효율적인지는 산림청에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진도는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우리 부시장님들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은 10년 동안 이 차 없는 거리가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관리위원회 할 때 오늘 얘기한 거 그대로 논의해서 그러면 우리라도 추진을 해보자.

지금은 누군가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만들 시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도 있으시고, “이거 차 없는 거리를 왜 하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지부진해 왔거든요.

그때 경기연구원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 보도 자료까지 냈어요.

“차 없는 거리 하겠다.” 유네스코 지정하면서, 그때 경기연구원에서도 연구 자료도 발표하고, 유네스코 지정할 때 하겠다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가지고, 왜냐면 이 도로를 생업으로 이용하시는 고객 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해 오다가 이제라도 좀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작년 딱 1년 전에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을 했어요.

차 없는 거리하고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근거도 만들겠다, 라

고 했고, 그러면 차 없는 거리 하기 전에 남양주에서 축제할 때 임시로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더 확대하는 거를 모델로 한번 삼아보자, 이 정도까지 많은 진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가면 이 10년이 지지부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을 때 좀 빨리했으면 바람이어서 그래요.

- 제가 아까 예산 얘기한 거는 주차장 얘기하시고 하니깐, 인프라 예산을 제가 얘기한 거고요.

차 없는 거리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많은 논의와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하기엔 여러 가지 저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이걸 하기 전에 인프라로 주차장도 마련해주고, 우회도로도 좀 해주고 이렇게 그런 예산들도 반영해놓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주말이라도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가봤으면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 냈으니깐 주차장 같은 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지, 이게 지금 부시장님들이 “갑자기 여기서 차 없는 거리가 된 얘기냐?”이렇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 위원(포천시 부시장 ○○○)

- 규모가 얼마나 되요? 주차장 사업비가 2,000~3,000평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 위원(소흘읍 이장협의회장 ○○○)

- 한 3,000평정도 됩니다.

■ 위원(포천시 부시장 ○○○)

- 돈으로 따지면 그게 200~300억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소흘읍 이장협의회장 ○○○)

- 여기 시가 한 100만원 잡아도 그 정도... 아니 30~40억이니깐, 토지 비용

만 그렇지만 나머지 기본 인프라 구축하려면 그래도 넉넉하게 100억 이내면 될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정리 좀 하겠습니다.

광릉숲관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낼 내용이 사실 인근 지역주민하고,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 ○○○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 외에 공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차 없는 거리만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니, 차 없는 거리를 포함한 활용, 이용, 이것에 대한 용역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그리고 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분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논의해서 뭔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선택할 수 있으니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역은 차 없는 거리를 포함 한 활용, 이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까 ○○○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 차 없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논리의 비약,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의결사항으로 넣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주십시오.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위원장님. 그러면 관리계획 용역비가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지는데, 도비는 확보가 되었나요?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용역에 대한 것은 경기도만 할 일이 아니고 정부도 같이 할 일이어서,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아니 도는 어저께 예산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통과 안됐습니다. 준비는 다 됐었는데 국비 확보를 보고 도비를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그러면 추경에 하는 겁니까?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만약에 국비가 준비되는 대로 도비는 올릴 생각이예요.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그러면 내년에 예산 계획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계약하면 벌써 4, 5달인데, 8월 달에 최소한 계약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내년 예산 올리기 힘들지요.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그래서 고민이에요. 정부가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도비만으로라도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도비 확보 못한다면서요?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국비가 내시 돼야 매칭으로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산림청에서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다 해 놨다가 반영을 못한 거예요.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한 번에 제대로 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초기는 저희가 정규 관리계획은 아니에요. 왜냐면 초기에는 저희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했고, ○○○ 박사가 초점을 둔 게 뭐냐 하면 일단 BR이 지정이 됐으니깐 지역에 안착을 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초점을 거기에다 두었습니다. 실제로 관리계획을 하려면 사실은 땅을 다루어야 되거든요. 생물자연성보전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궁극은 토지이용계획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아까 첫 번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 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땅을 다루어야 됩니다. 땅을 다루면 엄청나게 많은 갈등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큰 사업이고, 또 기본계획이 있어야 이 다음에 BR을 연장하고, 이런 것들 다 연동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차 없는 거리도 마찬가지로 땅을 다루겠다. 가할까요? 무슨 근거로요? 뭐로 근거로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좀 조속히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저희가 필요성이 있고, 끝까지 국비가 내려오면 반영하려고 저희가 준

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용역을 공무원들이 전문가하고 포함해서 하든가, 아니면 경기연구원에서 좀 자체 용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일단은 먼저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이 맞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에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일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해서 일단 용역을 먼저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지만 국가하고 지방하고 가는 단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꼭 협의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알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비만으로 라도 또는 그 연구원의 자체 용역 관련 되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용역하고 또 실천함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례를 가지고 광릉숲에 적용시켜서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는 확대된 그런 부분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포함한 용역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십시오.

○ ○○○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위원 ○○○)

○ 지금 이런 계획들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굉장히 사업이나 진행되는 측면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공조하기도 좋은 위원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MAB나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삶과 발전입니다.

그런데 그 지속 가능한 삶과 발전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이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에 살고 있는 삶을 이전에 안 좋았다면 좀 더 좋게, 아니면 이전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셨다면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대로 잘 살게 하시는 게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 중에 하나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얼마큼 담아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게 조금 반성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같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내년 계획에서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문가 섹터가 해야 되는 일들이 별도로 사실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건 저는 관리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계획을 보면 사실 올해 관리센터가 위탁으로 갔다가 지금 위탁기간이 끝났지요.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계획을 사실 저는 듣질 못했습니다.

아직 그 이후에 위탁으로 가야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직영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고민 중이시라는 말씀드렸고요.

- 그런데 관리센터의 역할이 사실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문가, 행정, 지역주민의 가운데에서 이 3개의 주체들을 어떻게 같이 연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협동을 해서 가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 역할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관리센터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위탁으로 가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관리센터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관리센터에 관련 된 이야기를 사실은 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어떤 역할을 관리센터에 부여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고, 또 논의가 필요합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알겠습니다. ○○○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관리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 센터장님이 우리 도의 산하기관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해왔는데, 물론 지역주민들과 연계되는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이런 거는 아까 성과도 보셨지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따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못 만들어 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정식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상주를 할 거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또 저희들은 산림과에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교감을 가질 때 우리 남양주, 포천, 의정부시하고도 연결해서 사업을 많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아직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해서 우리가 직접 용역을 해서 방향성도 갖추어나가고, 또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개발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내년부터 직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소홀읍 이장협의회장 ○○○)

○ 그럼 그 조직이 현재 여기에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우선은 팀장, 직원 2명, 공무원 2명 포함해서 5명 정도 선출할 겁니다.

■ 위원(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위원 ○○○)

○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직영으로 좀 더 활성화 해주겠다는 거는 되게 고무적이고, 감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 하실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디네이터는 지역에 깊숙하게 들어간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아까 주민공동체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활성화가 덜 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사업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그 사업이 끝나거나 지원이 끊기게 되면 사실 주민공동체는 더 이상 발전하거나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결국 코디네이터는 지역에서 사실은 행정의 일을 제외한 그 일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식은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외부 전문가나 전문위원제를 투입을 하신다 거나 아니면 무기 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좀 더 이쪽에 더 올인 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닌 좀 더 코디네이터와 관련된 분들 이 과정 중에 참여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예, 그거 명심 하겠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 센터장님이 아까

표창 받으시는 거 보셨지만,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기틀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같이 근무하면서 무기 계약직으로 공무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하다보면 어떤 지위상에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깐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잘 하겠고요.

일단은 지역주민하고 하는 거는 우리만 갖고 안 되고, 여기 남양주, 포천, 의정부하고 같은 분야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집중을 할 거고, 코디네이터의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분야도 한번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관리센터 기존에 몇 명이 하신 거예요? 3분이요.

그러면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5명이 업무를 본다고 하면 규모나 인원수가 적어진 건 아니에요.

아까도 보니깐 꽤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변화가 있어야 또 발전도 하긴 하니깐.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직영으로 해서 5명이 내려오셔서 상주하는 거지요? 그리고 정식 조직이 있겠지요. 팀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건가요?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5급 팀장급으로 1명으로 내려 올 거고요. 6급 1명, 7급 1명, 공무원 1명으로 일단은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할 거고요.

운영해 가면서 지금 저희들도 인력이 되어 있으니깐, 기왕이면 지금 여기 시군에 남양주나 포천에 공무원도 이쪽에 파견 받아서 같이 했으면 하는 건데, 아직 협의까지는 못했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알겠습니다. 지금 남양주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 포천 부시장도 나와 계시니깐, 서로 협조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센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있다가 의결 할 부분이 있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포천시 부시장 ○○○)

-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회의에 와서 답답한 것이 여기서 논의를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깐 거의 기관별로 사전에 협의 되가지고 이미 조율이 되고, 조율한 것을 수렴해서 결국 A, B, C, D 의견 다 들어보니깐 나갈 방향은 이겁니다. 라고 결정이 되고, 여기서 마음 편하게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20명 가까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하고 있으니깐,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가 그 일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지요? 그것 좀 강하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센터가 아까 직영, 통합 얘기도 있는데, 통합은 직영 이후 문제인가요? 아까 지질공원하고, 거기도 관리센터가 필요한데. 그게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고 지금 설립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패널로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장기 청사진으로 이 광릉숲센터를 산하 조직으로 제시를 했어요. 다 통합하면서 환경에너지 관련된 걸 짝 갖고 오면서 환경분야에 자연분야까지 센터에 갖고 오겠다. 그래서 1팀으로 해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광릉숲, 지질공원 쪽 넣

겠다. 라고 해서 “협의를 된 거냐?” 그랬더니 “어느 정도 협의는 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다면 지금 직영으로 갔다가, 한탄강이든 2개 센터가 또 생기면 3개 통합으로 움직였다가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그거는 너무 앞서나가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공원은 한탄강 지질공원 할 때 그거는 자연공원이 아니라 환경부고, 우리 광릉은 수목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담당합니다.

수목원장님도 와계시지만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때 저희들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에다가 문화유산하면 아까 저희가 소개했던 게 종합적인 예산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남과 북이 또 같이 남북협력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장기 포섭입니다.

그러니깐 지금은 서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도 그거를 이제서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기계획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거는 협의해서 어느 게 더 타당한 건지, 그거는 우리 집행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지사님이 나중에 결정하실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제가 얘기 드린 이유는 우리 관리위원회에 그런 센터에 앞으로 장래에 문제가 됐을 때 같이 논의를 좀 해서 우리가 센터가 어느 식으로 가야 되냐 할 때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그때 같이 공유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장기였습니까? 중기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중장기지요. 환경진흥원이 2단계잖아요. 1단계 출범하고.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사실은 우리가 단기로 바로 주장을 했었는데,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2년인가 3년 뒤에 용역계약이 끝나면 그때 붙일 때, 원래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 딱 들어왔더라고요, 팀 조직에 광릉BR센터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거기 기존에 에너지센터랑 합칠 때 그 인력을 재분배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광릉숲 전문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에너지에 있다가 왜 이걸 담당하느냐?” 제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신설할 때는 기존에 전문가 그룹, 이쪽 자연 산림 쪽 전문가 그룹이 거기에 들어가는 TO로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갖고 배분하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하고 그건 새로 할 거고요.

또 중장기로 2단계에 들어갈 때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의견을 내실 때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알고 우리 광릉숲센터가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들이 나오면 그걸 통합 과정에서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걸 되어 있더라고요.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그래서 제 생각은 경기도가 곧 만들 환경에너지진흥원에 BR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간지원조직들이 환경에너지 지원센터에 중기계획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들어갔으

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국립수목원장 ○○○)

○ 사실은 저희가 환경에너지센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고요.
구성이 어떻고, 내용이 어떤 지에 대한 공유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의결해서 올리는 거는 조금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우리 도 입장을 고려하고, 우리 참여하는
남양주, 포천, 의정부랑 다 협의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
시지 않습니까? 그걸 종합해서 나중에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자연공원은 거기지만 또 우리 수목원은 산림청이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균형적으로 저희가 잡아서 고려한 시간이 있습
니다. 지금은 좀 시기상조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
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문화보호구역 그것도 잠깐 소개
를 해드린 거거든요.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 추경에 설립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사님 결재까지 받고 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센터가 들
어가는 걸로 결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그러면 안 되는데...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그러니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의견을 내셔야 되는데, 저도 참가해서 제가 거기에서 입장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완 용역을 해서 이번 달까지 끝내요. 끝내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사님까지 1단계, 2단계, 가안은 결재를 받았고, 2단계 안에 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패널로 가서 용역을 보완 요구해서 보완 갖고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하고, 그 결과물을 갖고 지사님 보고하고 결정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센터 오는 게 축산산림국하고 논의가 된 거냐?” 했는데 “됐다”고 해서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용역 과정에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지요.

■ 위원(경기도의회 의원 ○○○)

○ 그래서 그거를 미룰 게 아니고, 그게 조만간 결정이 되면 센터는 중기적으로 2, 3년 후에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 위원(남양주시 부시장 ○○○)

○ 그런데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게 어차피 지금 우리 센터를 농식품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가 좀 라인이 안 맞았지만 운영을 했던 말이지요.

그러면 환경에너지센터가 됐든, 환경 생물권보전구역센터가 됐든, 이 건 도의 공공기관이고, 여기에 환경 업무뿐만 아니라, 에너지 업무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뿐만 아니라, 이런 생물권보전지역 업무까지 만약에 다 포괄하는 미션을 거기에 부여한다면 여러 실국에서 관련된 일들이 그 포켓을 통해서 집행이 되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더 중요한 건 우리 BR센터 입장에서 지금 용역기간이 만료가 됐으니 앞으로 어쨌든 지속 가능한 조직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테니 그것을 빨리 상설화하고 지속 가능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합의만 우리가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센터에 넣고, 안 넣고는 오히려 축산산림국에서도 그걸 그냥 그쪽에 위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협의를 해준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부시장님께서 말씀신대로 환경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연공원이나 산림에 대해서도 거기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직영을 하라고, 떨어진 주요 목적은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농식품유통에 대해서 전문기관이지 산림에 대한 전문기관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직영으로 결정된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권고를 하는 게 오히려 역할이 산림이나 수목원이나 이런 걸 다 관장하는 기관이라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알겠습니다. 그 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 위원(봉선사 종무실장 ○○○)

- 제가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보면 환경 얘기 나오고, 산림 얘기 나오고 하는데, 왜 경기도는 하필이면 산림, 축산을 같이 묶어놨어요?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끝나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봉선사 종무실장 ○○○)

○ 아니 그러니깐 지금 환경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산림과가 환경국으로 가는 게 맞고, 축산은 농정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그 2개를 그렇게 묶어놨는지 이해가 안 되요.

■ 위원(남양주시 부시장 ○○○)

○ 에너지과도 환경국에 갔다가 경제실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산림이랑 공원과 환경에 갔다가, 축산에 갔다가, 도시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 위원(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 우리 녹지분야에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해가지고 경기도녹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하고 과장님이 1시간 동안 욕 얻어먹고 만들어 놔는데 농업이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환수가 되는 정원분야도 공원녹지과로 다시 중간지원조직이 없으니깐 환수가 돼서 오게 되는데, 이게 BR 걸려서 결코 플러스 점수 못 받았습니다.
관리센터 민간 중심으로 가다가 관 주도로 간다? 플러스 점수 아니에요. 마이너스 점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경기도 축산산림국장 ○○○)

○ 그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요.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기도가 조속히 하긴 하겠지만 국가 예산이든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부 대표로 와계신 우리 원장님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와 같이 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국립수목원장 ○○○)

- 죄송합니다. 제가 정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오전에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과 이건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림청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계시고요.

담당하시는 예산 부서라든지, 저희 담당부서에서 추정 진행하실 때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 라는 걸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일이 시작된 곳이 저희가 예산 작업 한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쪽지 예산으로 가고 이러다가 시기가 된 부분이어서 타이밍이 좀 달랐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될 건데, 그때까지 염려하신 것처럼 너무 긴 텀이라면 그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큰 길을 가기 전에 조금 더 시급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진행이 경기도에서 있다면 더 유기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오늘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같지만 매우 흡족한 일들 중 하나가 우리 민간에서 ○○○ 센터장님이 굉장히 애쓰셨는데, 그때 어려웠던 것이 행정력, 좋은 뜻으로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던 거고, 아마 경기도에서 그런 뜻을 충분히 인지 하셔서 팀으로 만들어서 힘을 실으실 생각이신 거고, 또 여기에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활용화 할 수 있도록 센터가 건물 짓기 전까지 저

회 장소도 같이 활성화 되도록 내놓은 거고, 큰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진일보한 진행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요. 여기 위원님들, 부시장님, 다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광릉숲 보전과 BR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예, 고맙습니다. 이제 아까 주신 의견들을 정리를 좀 해서 의결사항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의중지 】

【 계속개의 】

□ 안건 의결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조금 전 말씀 주셨던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

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결 안건은 관리계획 용역예산사업은 2020년 제1회 추경에 국비 2억, 도비 2억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추경이 지연 될 경우 차 없는 거리 등 사업을 경기연구원 등과 협의 하여 상반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센터의 2020년 사업 중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한다.

- 두 번째 안건 관리센터조직은 직영으로 하되, 우선 T/F팀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고, 추후 산림과 사내에 팀을 신설 권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관협치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 권유한다. 입니다.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묻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니깐, 첫 번째 안건을 통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그리고 2번째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통과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폐회 선언

■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 ○○○)

- 더 이상 의견 없으시므로 경기도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2019년 정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폐회 16시 22분 】